“ 사이비(似而非) 신자 ”

■ **이종윤 원로목사**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명품을 모방하여 진짜처럼 팔고 있는 짝퉁 물품이 있는가 하면 얼굴까지 뜯어 고쳐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도 있다. 애국자라는 미명하에 자기 배만 불리는 거짓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진리의 산실인 교회 안에까지도 명예를 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이비(似而非) 신자들이 득실거린다. 신자의 진위(眞僞)를 분별하는 가름대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자기를 부인(否認)한다는 말은 참 크리스천이라면 이해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시도나 노력을 뒤로 던져 버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어떤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소위 긍정적 행동이나 적극적 사고를 기독교 신앙으로 오해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세상은 어느 것에 대해서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라신 예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고 가혹하게 들린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죄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죄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책을 느끼거나 일종의 변명으로는 충분치 않다. 근본적으로 회개란 정서나 말의 문제가 아니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 중에는 버리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은 없다. 생각나는 죄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하고 버리는 것을 뜻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모두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재물에 대한 생각 심지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부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다면 ‘흉악한 범죄자가 사형장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처형을 당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즉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예”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 자신에 대하여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은 노예적 자세가 아닌 자유인의 자세며 힘들다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운명으로 알고 체념하기보다 하나님 뜻을 좇아가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은 슬픈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즐겁고 그 첩경은 평강이다. 그러나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슬퍼 보인다. 슬퍼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진솔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외에 누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치 있고 정말 불가분해적인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가?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 기쁨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풍성함을 막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기쁨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2011년 11월 19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비대면의 시대를 뒤로 하고 교회당에 나아와 힘써 예배드리며 섬겨야 할 때입니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온 성도들이 기쁜 얼굴로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주일 식당운영을 완전 정상화 합니다. 배식시간은 오전 11시~오후 1시30분입니다.

또한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아기학교는 물론 주중에 개강되는 성경대학 출애굽기반 - 화요일 10시 30분, 마태복음반 - 목요일 10시 30분 말씀공부시간에도 적극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5l5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혜정,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옥(인도), 서광종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제32권 제20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2년 5월 15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 울 교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

■ **왕상 17:8-16**

본문에는 한 가정의 비극이 소개됩니다.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양식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느 과부 모자를 만난 엘리야는 물과 떡 한 조각을 청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가진 것은 가루 조금 뿐인데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마지막 식사를 아들과 같이 하고 그 후에는 이 고통스런 세상 삶을 마치려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두려워 말라’고 말한 후 이 가정을 위해 축복하여 먹고 마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했습니다. 죽음으로써 고통스런 삶을 마치려했던 이 가정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도 엘리야의 간구로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1. 도시 사람의 고통

시돈과 두로는 고대시절부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의 중개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사르밧은 두 도시 사이에 있는 도시였고 물질적 번영과 영적 타락이 함께 공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도시의 주민인 한 모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빈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흉년이 계속되면서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참담한 비극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비극은 아합 왕 부부의 불신앙과 폭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아합은 부인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 광적인 바알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었고 특히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비와 이슬을 주관하고 땅의 소산을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여야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소생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편에 과감히 서야 합니다.

2.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는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간파했습니다. 이방 땅 우상숭배의 본거지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 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에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야는 이 연약한 인생, 한 조각 떡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 깨어진 사람에게 ‘두려워 말고 네 삶의 자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어진 일상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이 힘든 세상사는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3.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어지는 말씀에 아들이 병들어 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혼을 돌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이도 살고 가족의 신앙도 온전히 살아났습니다.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큰 비의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온 땅의 생명체들이 춤추며 소생하는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위기의 가정을 소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죽은 아이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메마른 산천을 생명의 기운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마 11:3)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소생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죽을 육체까지도 살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Ⅰ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최형열 장로
Ⅱ	오전 11시	김익환 목사	서문석 장로
Ⅲ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마 11:28-30…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95(가정주일)···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93(9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왕상 17:8-1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524(313)···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동수 목사, 설교: 조동수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66:1-2 ····· 인 도 자
찬 송 ····· 37(37) ····· 다 함 께
기 도 ····· 김영표 집사
찬 송 ····· 140(130) ····· 다 함 께
성 경 ····· 마 2:1-3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 설 교 자
* 찬 송 ····· 24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수요예배

Ⅰ부 오전 11시 · 인도: 전재홍 목사
Ⅱ부 오후 7시 ·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Ⅰ부: 옥희숙 권사 Ⅱ부: 박래경 권사
성 경 …… 행 22:17-30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내가 너를 보내리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김익환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수요Ⅰ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성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왕상 17:14)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홍해작전 본부회의** / 15일(주일) 오후 12시20분 802호
2. **스데반 임원회의** / 15일(주일) 오후 1시15분 609호
3. **한나 전도회 월례회** / 15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4. **에스더 전도회 월례회** / 18일(수) 1부 예배 후 8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이번주 심방 일정**
    1-2, 1.5, 2-8, 4-1, 5-2, 8-3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535명	645명	2,180명	387명	2,073명

무서운 사람들

맹수나 재난은 두렵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스리는 인간이 더 무서운 존재다. 인간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섭다.

초대교회 당시 지위도 재물도 없는 무명의 사도들이 당대의 세도가나 지혜자들을 모조리 굴복시켜 세상을 그리스도화했다. 무엇이 그들에게 그같은 힘이 되었을까. 부정할 수도 말살시킬 수도 없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는 사흘 안에 다시 사셨고 사십 일 만에 승천하셨고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진리를 목숨보다 더 큰 사실로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하고 행한 복음과 일들이 모두 흠잡힐 석 없는 정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비록 적은 수였지만 상하가 일체였고 안과 밖이 한마음이었으며 사도와 평신도가 한덩어리 되었기 때문이다.

불로 태우거나 물로 씻겨지지 않을 진리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끕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